

철 기술 전파로 본 사하라 무역로의 역할과 지중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교류*

김광수**

1. 들어가는 글

서구 학자들은 세계사를 '서양 문명사'라고 규정하며 아프리카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지 않았다. 서양 문명사에서 아프리카 역사는 기껏해야 인류의 기원지, 고대왕국, 식민 지배 시기, 그리고 탈식민지화와 독립 이후의 시기 정도로 간략하게 다루었다. 아프리카 역사가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고보다는 식민지배 시기부터 서구 학자들의 의도적인 타자화(others), 주변부화(marginalization) 및 역사 왜곡 때문이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문명사에서 아프리카 문명은 서구중심주의(Westerncentrism)와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문명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주장¹⁾은 역사 교육과정에서 다룬 적도 없을뿐더러 서구의 역사학 전통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김광수 2012: 75-76)

기록된 자료와 고고학 발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 사료와 사하라 사막의 암각화를 통해 사하라 무역로 지중해, 북아프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너머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은 일찍부터 접촉하였으며 사하라 무역로²⁾를 통해 교류하며 발전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Hall 2014; Hunwick 2010; Konczacki and Konczacki 1977; Levtzion and Hopkins 2000; Levtzion and Spalding 2010; McKissack and McKissack 1995; Wright 2007).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Herodotos)는 BC 5세기에 사하라의 무역과 전차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사막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BC 5세기경에 말이 끄는 전차들이 이곳을 왕래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6S1A5A8018827) 및 201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교수, 이메일: afrikaans@hanmail.net.

- 1) 서구 역사가들은 그리스가 아리아인(Aryan)들에게 BC 1400년경 침략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고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기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서술은 과장된 것이며 왜곡된 것이다. 아리아인들이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들은 신석기 시대로 야만인이었으며, 청동기 시대로 대표되는 에게해 문명(Aegean Civilization)을 개척하기에 필요한 풍부한 문화와 고도의 예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Parker 1917: 334-335). 그런 의미에서 마틴 버넬(Martin Bernal)의 『블랙 아테나: 서양고전 문명의 아프리카-아시아적 뿌리: 제1권 날조된 고대 그리스, 1785-1985』(*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1 (1987))와 『블랙 아테나2: 고고학 및 문헌증거: 서양고전 문명의 아프리카-아시아적 뿌리』(*Black Athena: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vol.2) (1991)은 서구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에 대해 기원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서구의 인종차별의식이 작동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광수 2012: 76).
- 2) 본고에서는 사하라 횡단 또는 종횡단 무역로(Trans-Saharan trade route)는 사하라 무역로로,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 또는 도시는 사하라 또는 사헬(Sahel) 지역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수단 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남쪽 경계와 열대우림 북쪽 경계 사이를 통칭하며 사헬 지역 일부다. 서부 수단(Western Sudan) 지역은 가나, 말리, 송가이, 카넴-보르누 왕국의 문명이 꽃을 피웠던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를 지칭한다. 이 역시 혼돈을 피하고자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김광수 2019: 47-48).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auny 1978: 272-341). 또한, 카르타고와 로마가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사하라 사막을 건너 금과 노예무역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wanson 1978: 4-5). 이들 지역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언제부터 정기적으로 활발히 교역하게 되었는가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하라 사막'은 접촉과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문명을 교류할 수 있게 한 '사막의 바닷길'이었다는 사실이다(김광수 2019: 47-49).

논란이 많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서아프리카의 철 기술은 북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철 기술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3개 지역의 문명이 서로 교류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³⁾

이를 통해 '아프리카는 역사가 없다.'⁴⁾ 또는 '아프리카 역사는 세계사의 중심에서 제외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중심주의 시각⁵⁾에서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이 지중해 문명의 주변부가 아니었으며 아프리카 문명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문명의 일부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명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2. 북아프리카의 정체성

톨마헤바(Tolmacheva)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전달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문명의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프리카가 세계 문명에 기여한 지적 공헌이 아프리카의 경제적, 문화적 투입의 중요성이나 규모에 가려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의 수많은 직접 접촉, 특히 북아프리카와 인도양을 사이에 둔 동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접촉은 단순히 지리적 이유로 유럽을 우회한 것이며, 정치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상황(예: 이슬람의 출현) 때문에 서구 문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아프리카와 서구의 지적 상호작용의 이러한 결여, 불일치, 산발적인 특성은 일부 학자들이 역사적 증거를 잘못 해석하고 세계 문명에 아프리카가 적극

3) 백인들은 식민지 시기 이전부터 아프리카 문명 발전을 확산·전파이론(diffusion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즉 아프리카 역사와 문명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아프리카의 역사적 자각(self-consciousness)과 발전(development)을 인정하지 않았다(Chami 2007: 1-3, 12). 본고에서 고찰하고 있는 철 기술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서구의 잘못된 역사서술로 인식되고 있는 확산·전파이론에 비판 없이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포스넨스키(Posnansky)와 맥킨토시(McIntosh) (1976: 183-184)를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 도 디미(Do Dimi : BC 9세기), 노크(Nok : BC 918), 타루가(Taruga : BC 280~440년), 은수카(Nsukka : BC 6세기) 등지에서 철 기술에 대한 연대기적 증거와 철 작업 공정에서 철을 용해하는 용광로/노(爐)의 유형, 방법 및 기술의 다양한 변화를 변형을 바탕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철 기술이 토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했다(Calvocoressi and David 1979: 10). 그러나 본고의 내용은 3개 지역의 문명 교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철 기술이 아프리카 고유의 발명이었다는 토착 기원설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사하라 무역로와 철 기술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김광수. 2019. "사하라 무역로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발전." 『韓國아프리카學會誌』 56: 55-68.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desmondlampsey.blogspot.com/2012/09/normal-0-false-false-false.html?m=1>
(검색일: 2019.09.12.)

5) 서구의 아프리카 역사서술과 아프리카중심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광수, 2007.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 아프리카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아프리카 研究』 21: 55-78. 김광수. 2016.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 시각에서 바라본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의 역사적 맥락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35: 383-418.

적으로 기여했다는 '낭만적' 주장으로 인해 간과된 부분이 있다(2016: 1559-1560) .

벤타하르(Bentahar)는 아프리카 문학 연구에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서로 단절되어 있는지, 아니면 두 세계의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무대에서 이슬람과 아랍 세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북아프리카의 정체성은 아랍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사실이다. 흔히 북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공동체의 필수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의 문학 자료들은 고대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강력한 연대를 공유하였고 아프리카 문학 전통에 확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2009: iii).

그는 북아프리카를 아프리카 대륙 또는 사하라 이남과 연결하여 연구한 문학 전공자는 거의 없으며, 단지 소수의 학자가 프랑스어권(francophone)의 관점에서 다른 경우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프리카 문학 연구에서 북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화나 음악과 같은 다른 장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권과 비프랑스어권 관점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하라의 남쪽과 북쪽의 작품 분석은 사하라 사막에 의해 아프리카를 분리하려는 학문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아프리카의 문학과 문화는 더 광범위하게 아프리카의 문학적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009: iv, 1).

비록 아랍이 7세기에 북아프리카를 정복한 이후 중동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하라 사막은 문화적인 자료나 기준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경계라고 볼 수는 없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아프리카 연구와 일반인들의 견해 모두 표면적으로 대륙 전체에 대해 언급할 때에도 북아프리카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프리카"는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의미하며, 북아프리카는 많은 학문 분야에서 중동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⁶⁾. 벤타하르는 북아프리카가 중동과 중요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북아프리카의 문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통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과 같은 다른 형태의 예술과 문화 분야도 동일하다는 것이다(Bentahar 2009: iv, 1).

그러나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교류를 오랫동안 지속했다(Levtzion 2000: 63). 사하라 무역로를 이용한 상업망은 B.C. 9세기 카르타고 제국이 활동한 지중해 무역과 관련이 있으며 문화적으로 지중해,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교류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흐메드 라할(Ahmed Rahal)과 데이비드 굿맨(David Goodman)은 각각 튀니지와 모로코의 사하라 이남 지역사회에 관해 기술하였다. 반대로, 무크타르 우마르 분자(Mukhtar Umar Bunza)는 북아프리카가 나이지리아 북부의 이슬람 관습에 미친 영향에 관해 썼고, 아킨 유바(Akin Euba)는 요루바(Yoruba) 음악에 영향을 준 이슬람 문화에 관해 연구했다. 알리 마즈루이(Ali Mazrui)는 2005년 '아프리카의 재발명: 에드워드 사이드, 무디베, 그리고 그 너머(The Re-invention of Africa: Edward Said, V. Y. Mudimbe, and Beyond)'라는 글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정체성 형성에 북아프리카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주장했다(Bentahar 2009: 3).

몇몇 학자들은 특히 프랑스어권 관점에서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좀 더 대륙적인 접근을

6)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아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라고 지칭하고 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m/middle-east-and-north-africa-mena.asp>. (검색일: 2019.09.12.)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헬레네 티시에레스(Hélène Tissières)는 2002년 "마그레브-사하라 이남 관계(Maghreb - Sub-Saharan Connections)"라는 논문에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분리해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연관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토마스 헤일(Thomas Hale)은 5천 년 전 아프리카에서의 기록된 역사를 추적할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고대 이집트의 저술과 사하라 사막의 옛 무역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프리카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디아스포라(Diaspora)와 관련된 작품들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많은 학자가 지중해 남부 해안을 구성하는 광대한 지역은 여전히 아랍 문학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Bentahar 2009: 3-4).

3.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관계

3.1 아프리카와 지중해 관계 문헌 자료

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에 대한 자료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지리학 자료와 여행자의 기록이 남아 있다. 여행자의 기록으로는 5세기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Herodotus : 484?-425?)가 남긴 산만한 지리학 정보와 BC 1세기 말에 쓰인 그리스의 지리학자이며 역사가인 스트라보(Strabo : BC 63?~AD 21?)의 『지리학』(*Geography*), 로마의 정치가·박물학자·백과사전 편집자인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 : AD 23~79)가 남긴 제3권과 제4권 『자연사』(*Natural History*),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y : AD 100~170)가 AD 2세기에 남긴 『지리학』(*Geography*) 등이 있다. 헤로도토스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남겼다. 그는 이집트를 여행하였으나 마그레브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베르베르인에 대한 정보는 소문을 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트라보, 플리니우스, 프톨레마이오스 모두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남겼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도시의 경도와 위도를 남겼고 스트라보와 플리니우스는 북아프리카를 방문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정적인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마그레브인들과 친밀하게 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모두 파잔(Fazzan)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라만테스(Garamantes : 리비아 남부의 유목민 또는 그들이 세운 왕국)인에 대해 알고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북아프리카 남쪽 지역이나 사헬 지역에 대한 유용하고 세부적인 정보는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남기고 있는 사헬 지역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나 군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 전부다. 이들의 기록 중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과 지역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톨레마이오스는 에티오피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와 로마인은 에티오피아를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남쪽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다(Swanson 1978: 261-262).

파잔은 5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사하라 세계와 가깝게 접촉한 유일한 오아시스로 보인다. 사하라의 다른 지역들과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그리고 마그레브의 서쪽 2/3까지도 AD 4세기나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기 말기에 지중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고 생소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5세기와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가장 정교한 지리적 기술은 스페인의 세비아의 이시도르(Isidor of Seville)가 쓴 백과사전 『어원론』(*The Etymology*)(600-625)인데 이 책은 사하라 사막에 관한 플리니우스의 몽상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530년경에 튀니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당시의 여러 유명한 베르베르인을 알고 있었던 비잔틴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비잔틴 영토 너머의 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모리타니 서부를 통치한 무어인의 왕인 오르타이아스(Ortaias)가 그가 통치한 나라 너머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아주 먼 곳까지 뻗어 있는 사막의 땅이 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어인과 같은 검은 피부가 아니라, 몸이 매우 희고 머리가 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Swanson 1978: 227).

위의 자료들과 함께 중요한 자료들로는 우선,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진 『수도 스카이락스의 항해기』(*Periplus of Pseudo-Scylax*)로 지중해와 흑해의 항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AD 350~362년 사이에 만들어진 『세계와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Expositio Totius Mundi*)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와 생산품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 북아프리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다. 세 번째 귀중한 문헌은 『한노의 항해기』(*Periplus of Hanno*)로 모로코 해안과 그 너머에서 카르타고의 항해를 묘사한 BC 5세기 그리스어 표기의 사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의 사실 여부는 현대 학자들에 의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플리니우스가 언급한 자료다(Swanson 1978: 262-263).

그리스-로마 시대 역사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역사 자료는 BC 5세기 아테네든, AD 2세기 로마든 그리스-로마 역사가들의 본질적인 관심인 지중해 지역의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한정되지만, 북아프리카(또는 적어도 북아프리카의 1/3에 해당하는 지역과 튀니지의 대해서는)에 대한 실질적인 역사적 자료가 존재한다. 게다가 그리스-로마 역사학은 배타적으로 정치 및 군사 분야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의 서술에서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다. 이는 카르타고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군사 및 정치사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다(Swanson 1978: 264-265).

군사자료는 북아프리카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인이 튀니지의 외국 침략자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그의 저서 『역사』(*The Histories*)에 BC 264~BC 146 사이의 로마 역사를 기술하였는데 그중에서 포에니 전쟁사를 다루었다. 또한, BC 1세기 말 로마의 역사가 리비(Livy 또는 Titus Livius : BC 64 또는 59~AD 12 또는 17)는 『로마의 역사』(*History of Rome*)에서 베르베르인의 역사로 BC 111-108년 사이에 발생한 주구르틴 전쟁(Jugurthine War : BC 112~ BC 106 사이에 로마와 누미디아의 왕 주구르타(Jugurtha)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남기고 있다. BC 46년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시저(Julius Caesar)는 정치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북아프리카에서 낙타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을 남겼다(Swanson 1978: 265-266).

아마도 베르베르인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고전적인 정보는 6세기에 비잔틴의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인 프로코피우스(Procopius : AD 490~562)가 쓴 『전쟁의 역사』(*History of the Wars*)라고 할 수 있다. 프로코피우스는 반달족의 지배를 물리치기 위해 AD 533년 유스티아누스(Justinian) 황제가 북아프리카로 보낸 군사 원정에 동행하였고 반달 전쟁(Vandal Wars)에서 마그레브 지역에서 비잔틴군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기록을 남겼다. 베르베르인들은 이 기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되었고, 독특하고 매우 가치 있는 민족학 정보가 등장한다(Swanson 1978: 266).

3.2 아프리카와 지중해의 교류

성경에서 언급한 타르시시(Tarshish)는 지금의 스페인 남서쪽 지브롤터 인근으로 그리스인에

의해 타르테소스(Tartessus)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은, 금, 주석, 그리고 다른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레반트(Levant)에서 온 페니키아 상인이 솔로몬 시대인 BC 10세기에 스페인 남부와 교역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BC 1세기 시칠리아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Diodorus Siculus : BC 90~30)는 초기에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스페인에서 은을 획득하여 동쪽에서 널리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페니키아인의 무역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페니키아인은 무역을 통해 번영을 구가했고 페니키아인이 지중해 서부지역으로 식민지 원정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댈 수 있었으며 카르타고를 건설했다고 주장했다(Swanson 1978: 49-51).

사실 로마는 마그레브 남쪽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플리니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사하라의 민족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었다. 첫째, 그는 이 지역에 물이 부족하여서 동물들이 몇 안 되는 강으로 모여들었고 결과적으로 물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이 난무하고 무분별하게 짝짓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기술했다. 둘째, 사헬 지역의 거주자인 유목민의 문명을 '인간 이하'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목민을 종족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모두 매우 부정적인 설명뿐이다. 캄푸산테(Gamphasante : 리비아 지역의 민족들을 총칭하여 지칭)인은 별거벗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며 외부인과 관계를 맺으며, 블렘미(Blemmye)인은 머리가 없고, 입과 귀가 가슴에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사티로스(Satyr)인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인간성이 없고, 스트라풋(Strapfoot)인은 가죽 슬리퍼와 같은 발을 가진 사람들로, 걷기보다는 기어 다니는 것이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플리니우스의 이러한 설명은 AD 1세기뿐만 아니라 이후 지중해 세계의 태도를 반영하는 기준이 되었다(Swanson 1978: 133-134).

로마 시대 말기의 상황을 보면 로마의 통치가 지중해 세계의 지평을 넓혔다는 일반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대한 무지는 지속하였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과 아비시니아 고원에 있던 에티오피아 악숨(Axum) 왕국과 직접적인 접촉이 AD 6세기에 처음 있었고 이후 동쪽 지역에 대한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AD 6세기에 이집트 승려인 코스마스(Cosmas)가 쓴 『그리스도교 지지(地誌)』(*Christian Topography*)인데 이 책에서 에티오피아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⁷⁾

튀니지인은 로마 시기 말기에 해안에서 가까운 오아시스의 민족들과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D 2~4세기에 로마인이 기술한 파잔의 가라만테스 유목민은 대표적인 사하라 민족이었다. 그들은 로마인이 알고 있는 사막의 최남단 거주자였으며, 트리폴리타니아(Tripolitania)와 파잔 사이의 접촉이 AD 100년 이후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Swanson 1978: 217-218).

로마 통치 말기에 처음으로 사하라 사막의 북쪽 가장자리 오아시스들이 잠재적인 노예의 원천으로 지중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반달(Vandal), 비잔틴(Byzantine), 초기 아랍 시기에 파잔과 북아프리카 사이에 간헐적인 노예 거래에 대한 증거가 보이지만 이 증거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AD 5~7세기에 파잔은 지중해 세계에 노예를 공급하는 곳이 아니었다.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노예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통해 발생했고 마그레브 지역에

7) 그는 'Cosmas Indicopleutes'라고도 불렀는데 'Indicopleustes'는 "인도 항해자" 또는 "인도 여행자"라는 뜻으로 그가 인도에 여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 상당 부분이 신학, 지리학, 그리고 두 관계에 대해 할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코스마스가 얼마간 머물렀던 악숨의 아비시니아에 대한 묘사는 비록 아프리카 대륙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그의 설명이 그다지 통찰력이 있거나 좋은 정보는 아니지만, 아프리카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수 2012:88-89).

서 베르베르인이 노예로 충족되었다. 사하라 오아시스 출신 노예 몇 명이 마그레브로 유입 되었을 수는 있지만 9세기 이전에 대량의 노예 포로나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노예들이 북아프리카 노예 시장에 도착했다는 증거는 없다(Swanson 1978: 221).

1926년 그셀은 로마의 두 도시인 렵티스마그나(Leptis Magna)와 사브라타(Sabratha)가 그리스-로마 시대에 번성하는 사하라 횡단 교역의 북쪽 종착지라고 제안했다. 그셀의 가설은 앙리 로트(Henri Lhote)와 레이몬드 마우니(Raymond Mauny)가 암각화를 통해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선사시대의 "전차 길(chariot-routes)"을 주장함으로써 결정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사하라 횡단 무역의 번영에 관한 주장은 트리폴리타니아뿐만 아니라 로마 아프리카 전체에 "금, 노예, 상아, 타조 깃털, 가죽"을 공급한 것으로 기술되었다(Swanson 1975: 582).

거대하고 편안한 도시인 팀가드(Timgad)와 렵티스(Leptis), 티파자(Tipaza)와 두가(Dougga), 쿠이쿨(Cuicul), 툴부바(Thuburba), 그리고 많은 다른 도시들이 등장하면서, 사하라 횡단 무역은 성장과 질서 정연한 조직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북쪽에서 상업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초기 무역이 서기 2세기 이후 시작되었다. 무역은 몇 가지 이유로 성장했다. 북부의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거의 불가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항구가 되었다. 낙타의 광범위한 사용은 교역로를 따라, 어쨌든 로마의 국경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만들고 오래된 우물을 보호하면서 함께 병행되었다. 게다가 로마의 통치는 국경 너머 무역로를 안전하게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금과 상아를 취급하는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아프리카인과 정기적으로 자주 접촉했던 많은 베르베르 중개인을 통해 잘 정돈된 무역체제에 대한 인상을 준다(Swanson 1975: 582-583).

베질 데이비슨(Basil Davidson)만이 로마 지배 시기 사하라 횡단 무역을 의미 있는 것으로 묘사한 유일한 학자는 아니다. 롤랜드 올리버(Roland Oliver)와 페이지(J.D. Fage)는 "최소한 BC 5세기부터 지중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이 정기적인 접촉"을 상정해 왔으며, 스투어트 샤(Stuart Schaar)는 로마 지배 시기에 사하라 중부지역에 있었던 가라만테스의 "상업 제국"을 주장했다. (Swanson 1975: 583).

로마 시대의 사하라 횡단 무역을 신화화한 것은 데이비슨이 말한 것처럼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적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로빈 할렛(Robin Hallet)은 고고학-문헌 증거가 고전 시대에 번창하는 무역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보빌(E. W. Bovill), 로우(R. G. Law), 마우니(R. Mauny)와 비슷한 결론이다. 사실, 데이비슨과 그 주장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정한 수의 논리적인 가정으로 그들의 결론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이들 대부분은 데이비슨의 진술에서 분명하며, 쉽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로마 아프리카(Roman Africa)⁸⁾의 번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하라 횡단 무역에 기인했으리라는 것이다. 둘째, 서아프리카 상품에 대한 로마 아프리카의 중요한 수요는 그것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자극했을 것이라

8) 로마는 이집트와 키레나이카(Cyrenaica)를 북아프리카 일부로 보지 않았다. 북아프리카라는 용어는 특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서부의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 이러한 구별은 이집트와 마그레브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로마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대(大)시르테(Greater Syrtis)와 소(小)시르테(Lesser Syrtis)의 위험한 바다와 키레네(Cyrene)와 렵티스 사이의 위험한 사막으로 인식되었다.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의 문화는 다르다고 보았는데 북아프리카는 로마 시대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일부가 되었고 이집트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일부였다. 요컨대, 로마 북아프리카는 그리스, 시리아 또는 제국의 다른 동부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거의 공통점이 없었다. 로마 아프리카는 BC 146년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너뜨린 이후부터 AD 439년 반달족이 침략할 때까지 지속하였다. 로마는 AD 1세기까지 북아프리카 전역을 직접 지배하지 않았으며 베르베르 왕조인 누미디아 왕국을 통해 제국의 이익을 유지하였다(Swanson 1975: 584-585).

고 주장한다. 셋째, 로마인들은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하라 사막의 민족들과 접촉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 서아프리카 상품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Swanson 1975: 583-584).

실제로 로마에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궁금한 주제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로마 경제에 사하라 횡단 무역로를 통한 지속적인 무역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 노예, 상아, 타조 깃털, 가죽과 같은 서아프리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제한적인 무역이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그 규모는 소규모였다고 보고 있다(Swanson 1975: 593, 597-598).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로마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상업적 접촉을 규명하기 위해 페잔의 가라만테스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적으로나 로마 시대에 사하라 사막을 건너 활발한 무역을 전개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샤(Schaar)는 로트가 주장한 것처럼 가라만테스인이 똑똑한 중개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용 가능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페잔에서 로마의 유리와 도기 조각, 그리고 로마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무덤이 발견되었지만 페잔이 겪은 빈곤을 볼 때 로마인과 가라만테스인 사이의 무역과 접촉이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Swanson 1975: 598-599).

4.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과의 관계

4.1 북아프리카, 사하라,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관계 문헌 자료

세계와 민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저술 활동이었다. 이 활동의 가장 현존하는 산물은 플리니우스의 『자연사』인데, 이 책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교육받은 엘리트들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 중 하나이다. 『자연사』에는 그가 들은 사실과 소문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현대 학자들이 그의 저술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플리니우스는 로마 세계에 알려진 모든 광물과 금속의 출처와 특징에 몇 권의 책을 할애하고 있다. 그중 그는 금이 발견된 로마 제국 내외의 땅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북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중 한 곳에서 로마 제국에 수입된 금을 생산했다면, 이 말이 플리니우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이 경우 그는 분명히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 북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을 금의 원천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그 당시 학자들이 권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사이의 금과 노예 거래가 플리니우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플리니우스와 동시대 사람들은 금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었고, 『자연사』에서는 비록 그가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더라도 외국과 알려지지 않은 땅을 금의 원천으로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예로, 누비아는 그중 하나였는데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Swanson 1978: 267-268).

고대 세계의 시인, 편지 작성자, 웅변가, 수사학자들의 글에서 얻을 수 있는 사하라 사막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다. 교육을 받은 그리스나 로마인은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이 피부가 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것은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러나 2세기 로마의 철학자로 북아프리카 출신인 아풀레우스(Apuleius)의 『사과』(Apology)와 『플로리다』(Florida) 그리고 『라틴 명시선집』(Latin

Anthology)에서 로마 튀니지와 트리폴리타니아의 상류층 생활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라틴 명시선집』은 반달족의 통치 아래 사는 라틴어 작가들에 의해 AD 5~6세기 초에 정리된 것이다. 북아프리카 역사에서 반달과 반달 이후의 시대는 사실 베르베르족과 비잔틴의 전쟁을 묘사한 AD 6세기 후반의 로마 서사시인 코리푸스(Flavius Cresconius Corippus)의 『리비안 전쟁에 대한 존의 이야기』(*Iohannidos seu de Beilis Libycis*)가 중요하다. 코리푸스는 민족학자도 역사학자도 아니었으며, 북아프리카와 베르베르인들에 관해 그가 제시한 것과 같은 정보는 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코리푸스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그의 작품은 베르베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 받은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아프리카학자들로부터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Swanson 1978: 269-270).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이러한 자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마그레브와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사이의 경제 교류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아프리카의 내륙 지역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곳은 헬리오도로스(Heliodorus) 같은 고대 그리스 소설가가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곳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화적인 땅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지중해 세계에 친숙해진 것은 중세 후기부터이다(Swanson 1978: 271-272).

북아프리카의 다른 원주민은 헤로도토스가 설명한 것처럼 새로 유입된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들이었다. 2천 년 후반에 미노스(Minoan)인과 미케네(Mycenae)인이 쇠퇴하면서 페니키아인들은 스페인과 남부 사르디니아(Sardinia)의 구리, 은, 납, 철을 찾아 지중해 서쪽으로 모험을 하기 시작했다. 지중해 동부

<지도1> 북아프리카의 주요 도시(Oliver and Fagan 1975: 8)



지역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영향권으로 기울던 BC 1천 년 중반 무렵, 서쪽의 페니키아인 교역소, 특히 지금의 튀니지 지역에 있던 카르타고는 주변의 제조업 도시와 페니키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농경지에 둘러싸여 진정한 식민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페니키아 통치 트리폴리타니아 해안에는 사브라타(Sabrata)와 렙티스 마그나(Leptis Magna)가, 튀니지에는 카르타고 이외에 제르바(Djerba), 수스(Sousse) 그리고 비제르타(Bizerta)가, 알제리에는 본(Bone)과 시르타(Cirta)가, 모로코에는 세우타(Ceuta), 탕헤르(Tangier), 리수스(Lixus) 그리고 모가도르(Mogador) 등이 있었다. 카르타고와 스페인에서부터 더 많은 해상 무역로가 대서양으로, 북쪽으로는 브리타니(Brittany)와 콘월(Cornwall)의 주석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되었고, 남쪽으로는 서아프리카 금을 찾아 모로코 해안을 따라 내려갔다. 모가도르에 있는 교역소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북동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대에

케이프 주비(Cape Juby) 너머로 항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Oliver and Fagan 1975: 7-8).

아랍 지리학은 이란, 인도, 그리스의 지리적 지식이 아랍인들에게 전달된 바그다드와 이란 지방에서 처음 발달했다. 이슬람 지배의 확대와 제국 내부와 국경을 넘는 무역의 발전은 아랍인에게 세계의 지평을 넓혔다. 크게 보면 아랍 지리학은 이슬람 세계의 동쪽 지방, 마그레브 지역과 스페인,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지리적 정보는 사하라 무역로의 성장과 함께 풍부하게 기술되었다. 즉 무역업자들은 지리학자들에게 먼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정보원이었다. AD 8세기 말경에 인도 지리학에 영향을 준 알파자리(al-Fazārī)는 '금의 땅, 가나'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다. 847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는 알크와리즈미(al-Khwārizmī)는 이슬람 지리학 발전에 그리스 지리학을 이용하였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Geography*)에 나오는 고대에 알려지지 않은 지리적 명칭을 아랍어로 각색하였는데, 자가와(Zaghāwa), 카우카우(Kawkaw), 가나(Ghana) 등의 지명이 나온다(Levtzion 1968: 223).

AD 7~8세기 이후 사하라 무역로와 소통에 관한 정보가 아랍 문헌에 널리 나타났고, 9~11세기에 아랍 지리학자들은 사하라 사막과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땅과 민족들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관한 한, 알-야쿠비(Ahmad al-Ya'qubi)⁹⁾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지중해 사람들에게 세계의 국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정보는 아마도 8세기 이후 사하라 사막과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관한 정보와 소문으로 그리스-로마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사하라 무역을 통한 상업적 이익은 지중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사막을 건너고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과 교역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에 관해서는 입소문에 의해 전달되었고 결국 이란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작가들을 포함한 이슬람 세계의 작가들에게 다시 문자로 기록되었다(Swanson 1978: 272-273).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대한 아랍 자료가 갑자기 전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AD 8세기 문헌에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민족과 사회에 대해 모호하게 몇 가지 언급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이슬람 세계의 동부에 살고 있고, 심지어 마그레브와도 익숙하지 않은 9세기 초의 작가들은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압바시드(Abbasid) 왕조의 학자 알자히즈(al-Jahiz)와 지리학자 이븐 흐르다드바(Ibn Khurdadhbeh)가 서부 이슬람 지역의 생산품을 열거할 때, 북아프리카를 중요한 수출지역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금이 마그레브 지역으로 전달되었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동시대 역사학자 알하킴(Ibn Abd al-Hakam)과 알발라두리(Ahmad Ibn Yahya al-Baladhuri)는 아랍의 북아프리카 정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남겼지만, 그들이 기술한 많은 내용은 불확실한 구전에 기초하고 있다. 더구나 두 역사가 모두 마그레브를 넘어 사하라 사막에 이르는 초기 아랍인 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Swanson 1978: 273-274).

그러나 9세기 후반에는 북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금과 노예를 거래하는 사하라 횡단 무역의 번영으로 알야쿠비, 이븐 알파치(Ibn al-Faqih), 알하마디(al-Hamdani), 알이스타크리(al-Istakhri)와 같은 동부 지역의 학자들이 자신의 저술에 이 지역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0세기에 당시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던 파티미드(Fatimid) 왕조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븐 하우갈(Ibn Hawqal)같은 학자는 마그레브에 관한 풍부한 개인 지

9) 『이븐 와디의 연대기』(Tārīkh ibn Wāḍih)와 일반지리학서인 『제국서(諸國書)』(Kitāb al-buldān)를 남겼다.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5a0767a (검색일 : 2019.09.14).

식을 전하고 있다. 11세기에 스페인 지역의 학자인 알바크리(Abū 'Ubayd al-Bakrī)는 마그레브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Swanson 1978: 274). 또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자료 중 하나는 19세기 말에 카이로의 유대교회당의 서고에서 발견된 '게니자(Geniza)' 문서다¹⁰⁾. 이집트와 튀니지의 상인들이 교류한 많은 서신이 발견되었으며 10세기와 11세기에 마그레브에 대한 많은 필수적인 경제정보를 포함하고 있다(Swanson 1978: 274-275).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도시와 왕국에 관한 이름이 마그레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역업자나 사하라 횡단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통해 바그다드에 있는 호기심 많은 지리학자에게 전해졌다. 알야쿠비는 891년,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과의 노예무역 중심지인 주와일라(Zuwaila)의 쿠라산(Khurāsān), 알바스라(al-Basra), 그리고 알쿠파(al-Kūfa)의 상인들을 언급했다. 알야쿠비는 872년(259A) 이전에 쿠라산의 타히리드(Tahirids)에서 일을 하는 동안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업적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대한 단순한 이름 이외에 이 지역의 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알바크리가 1067~1068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대해 최초로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역사를 보다 확실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대한 알바크리의 설명은 그가 묘사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세하다. 그러나 그가 코르도바(Cordova)에서 이 책을 기술했으며 무역업자들과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한편, 초기의 지리학자 이븐-하우칼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 951~952 사이에 아다고스트(Awdaghost)를 방문하여 '흑인의 땅(*bilād al-Sūdān*)'에 도달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4세기가 지난 14세기 중반 이븐-바투타(Ibn-Battūta)는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을 여행하였고 그의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있다(Levtzion 1968: 224).

4.2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교류

그셀(Stephane Gsell)은 카르타고인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거나 서아프리카 해안을 향해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의 금을 찾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카르타고인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다는 기록은 분명하지 않다. 카르타고는 BC 5~2세기 사이에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한 국가로 떠올랐으며 이로 인해 헬레니즘 시대(Hellenism Age :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한 BC 334부터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종말을 고한 BC 30 사이의 약 300여 년 기간)에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 카르타고인을 무역상이라고 생각했다(Swanson 1978: 62-63).

리비아 남서부 가라마(Garama : 현재는 Jarma 또는 Jirma로 명칭이 바뀌었음)와 주변에서 로마 시대의 도기와 유리, 그리고 그리스-로마(Greco-Roma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건축술과 그리스어 비문 등이 발굴되었다. 이는 그리스-로마 문화가 AD 2세기까지 파잔의 가라만테스인에게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또는 구리광산이 있었던 모리타니에는 그리스-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파잔이 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사하라 중심부에 있는 호가르(Hoggar) 산맥의 비탈에 있는 알제리 아발레사(Abalessa) 정착지 근처에서 발견된 유적을 통해 이러

10)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1g2373a (검색일: 2019.09.14).

한 의심이 해소되었다. 베르베르 토착민들이 통치자인 여왕 틴 히난(Tin Hinan)의 묘¹¹⁾로 주장하는 투박한 돌로 만든 묘에서 금과 은 조각, 로마의 등(燈), 도기, 보석 등이 발굴되었는데 보석과 구슬로 장식한 여자의 시신이 함께 발굴되었다. 지중해에서 생산된 몇 가지 유물은 로마 시기 후반인 AD 3~4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리버 데이비스(Oliver Davies)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물건들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 통용되었으며 아발레사까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발레사는 AD 320년보다는 늦은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거나 6세기 또는 7세기로 볼 수도 있다. 낙타와 베르베르인의 사용한 초기 티파나그(Tifanagh) 문자가 발견된 것은 동시대의 것이거나 또는 더 이른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wanson 1978: 129-130).

최근 틴 히난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가 470 ± 130 로 밝혀짐으로써 로마 시기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데이비스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다.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로마 시기 후기에 사하라 무역로를 통한 접촉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아마도 이러한 접촉은 로마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상인들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오아시스에서 다른 오아시스로 상품과 기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이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헐적인 접촉의 결과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지리적 정보가 북쪽으로 전해져 결국 로마 시기의 그리스와 로마 지리학자들의 기록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헤로도토스는 나사모니아인(Nasamonian : 고대 베르베르인을 지칭) 젊은이들이 사막을 횡단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하라를 흐르는 거대한 강에 대해 언급했고 스트라보, 플리니우스, 프톨레마이오스도 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지리적 정보는 어떤 경우에는 나이지강이 나일강으로 묘사되는 일도 있었다(Swanson 1978: 130-131).

북아프리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원주민인 베르베르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북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보다 페니키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반달족, 비잔틴인, 그리고 아랍인 등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나 이 침략자들은 북아프리카 인구의 일부였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각각의 침략자들은 다음 침략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동화되었다. 게다가 그들이 실제로 정착한 지역은 해안 평원을 넘어서 내륙으로는 거의 확장되지 않았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침략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인구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식량 생산을 위한 지역만 지배했다. 이 도시지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정착하여 사는 베르베르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침략자들이 강해지면, 대부분 베르베르인은 지배를 받았으나 침략자의 힘이 약해지면,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만들었다. 이들

11) 나는 2018년 1월 25일 타마란셋 대학교 고고학 전문가인 벤메사우드 메사우다 교수(Prof. Benmessaouab Messaouda)의 도움을 받아 틴 히난 유적지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틴 히난의 유적은 알제리 남부의 타마란셋(Tamanrasset)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아발레사의 마을 앞 강의 언덕에 있다. 타마란셋은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에서 약 200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니제르 국경까지 약 400킬로미터, 그리고 니제르 수도인 니아메이까지 약 100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사하라 무역로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구전 역사에 따르면 틴 히난은 여왕이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아마도 사하라 무역로를 따라 모로코에서 건너와 물이 풍부한 이곳에 정착하여 무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강의 언덕 위에 만들어진 성곽 또는 저택으로 모두 11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1830년대 프랑스인이 1차 발굴을 했고 이후 프랑스와 미국이 공동발굴을 진행했다. 유물과 함께 시신이 발굴되었으나 미국에서 프랑스로 가져갔다가 다시 알제리에 돌려주었으며 현재는 수도인 알제의 바르도 박물관(Bardo Museum)에 있다. 이곳 박물관은 사진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었으며 유물은 없었다. 메사우다 교수는 유물을 분석이 없고 프랑스에서 책으로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문화부장관에게 유물 보호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은 유목민으로 묘사되었지만, 사냥꾼, 유목민, 오아시스의 경작자 등으로 주로 산과 사막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결코 침략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군사적 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도둑이 되어 부를 유지하고 있었다(Oliver and Fagan 1975: 47).

아랍인들에 의해 소위 베르베르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리비아인으로, 로마인들에게는 무어인으로 알려져 있다. 헤로도토스의 문헌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시르테만(Gulf of Sirte) 남쪽에 사는 리비아인은 이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동부 트리폴리타니아에는 나사모니아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겨울에는 해안 지역에서 유목하며 보내고, 여름에는 그들의 양과 소를 바닷가에 남겨두고 안길라(Angila)의 오아시스가 있는 내륙 지역에 가서 대추야자를 모았다. 안길라에서 서쪽 지역으로 열흘간 여행을 하면 리비아 베르베르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던 가라만테스인의 본거지인 가라마의 거대한 오아시스 지역이었다. 페잔에서 혼합 농업이 가능했고, 호가를 협곡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계절적 하천을 따라 인구가 밀집되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 증거로 규명이 되었다. 1933~1934년 카푸토(Caputo), 페이스(Pace), 세르기(Sergi)의 이탈리아 탐험대는 가르마에서 AD 5세기부터 카르타고 시대와 로마 시대에 걸쳐 약 45000개의 묘지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묘지를 발견했다. 제1장에서 보았듯이 헤로도토스는 가라만테스인이 전차를 이용해 호가르와 티베스티(Tibesti) 계곡의 동굴에 살던 흑인 '에티오피아인'들 가운데 노예를 찾아 습격했다고 보고했다. 주로 로트가 연구한 전차의 암각화 분포는 호가르를 가로질러 이포가스의 아드라르(Adrar of the Ifoghas)까지 뻗어 있으며, 여기서 베르베르인들은 적어도 낙타가 말을 대신하기 이전부터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흑인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Oliver and Fagan 1975: 47-48).

북아프리카 역사를 보면 나일강 서쪽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주요 원주민은 베르베르족이었는데, 이들은 아프로-아시아틱(Afro-Asiatic) 어족에 속했다. 이들은 문헌에는 리비아인으로 묘사되었고 헤로도토스 시대부터 그들에 대한 언급이 빈번히 나온다. 나일 계곡의 가장자리부터 시르테 만의 서쪽 구석까지 계절에 따라 해안과 사막의 가장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유목민이었다. 그러나 튀니지 평야에서, 아틀라스산맥과 바다 사이에서 헤로도토스 시대에 베르베르 농경 공동체가 강 계곡과 해안 평야의 비옥한 토양을 경작하기 시작했다(Oliver and Fagan 1975: 7)

이 당시 베르베르인은 마그레브 동부 지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튀니지와 북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과 더 긴밀한 상업적 유대관계를 구축하였다. 마그레브 지방의 거주자들과 튀니지 출신 이주민이 만든 새로운 공동체는 점차 사하라 사막의 가장자리와 사하라 무역로에 대해 더 깊숙이 관여하였고 지중해 세계와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둘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낙타를 이용한 상단을 꾸려 사하라 사막을 넘어 상업적으로 접촉하였고,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었다. 타하르트(Tahart 또는 Tahat : 지금의 알제리 타만라셋의 아발레사 공동체) 상인과 다른 베르베르 공동체의 상인들이 공교롭게도 성공을 위해 사하라 횡단 무역로의 개발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국가들이 언제 처음 출현했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많은 학자가 이르면 8세기에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의미 있는 통치 조직이 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타하르트의 상인들이 8세기 후반에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도착했을 때 금 생산지역에서 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조직을 발견했을 것이다. 국가와 같은 통치 조직이 없다면 사하라를 횡단하는 장거리 교역이 번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 틀림없다(Swanson 1978: 242-244).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가능성과 추정치에 불과하며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분명히 8~9세기에 사하라 사막에 낙타가 이용된 것은 사하라 횡단 무역의 성장의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데 이의가 없다. 고대 및 중세시대에 지중해 세계는 사하라 무역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인 황금과 노예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금에 대한 지중해 세계의 욕구는 로마 시기에 AD 3세기에 스페인의 광산에 의해 충족되었고, 동·중부 유럽과 누비아에서 금을 수입하여 충족하였다. 이후 수 세기 동안 지중해 세계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금을 찾지 않을 만큼 금을 공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금에 대한 수요는 8세기와 9세기에는 많았지만, 특히 서아프리카의 금 자원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 새로운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북아프리카 상인들의 수요에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Swanson 1978: 244-245).

그렇다면 또 다른 설명으로 지중해 세계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국제 노예무역의 증가가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중해 세계의 노예 수요의 변화로, 8세기에 처음으로 상인들이 지중해 세계의 국경 너머에서 대량으로 획득한 노예들을 공급하였다. 노예제도는 고대 및 중세시대 지중해 문명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노예제는 가정 노예와 농업 노예의 두 가지가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전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량으로 고용되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 노예들은 부유한 지주들만 소유할 수 있었고, 거대한 규모로 고용되어야 했다¹²⁾. 일반적으로 노예들의 가격은 너무 높아 개인이 거대한 규모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Swanson 1978: 245).

6세기에 북아프리카의 비잔틴 국경에서 베르베르족과 비잔틴과의 전쟁에서 노예가 된 많은 수의 베르베르인들이 거래되었고 노예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틴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많은 베르베르 포로들이 카르타고, 하드루메툼(Hadrumentum), 그리고 마그레브의 로마 도시에서 거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아프리카는 6세기에 지중해 세계의 요구에 따라 많은 노예를 공급했던 로마 제국의 국경 지역 중 하나였다(Swanson 1978: 248-249).

게다가 아랍 초기 아랍 역사가들의 기록은 아랍인들이 북아프리카에서 7세기 후반과 8세기 초에 많은 수의 베르베르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를 남겼다. 그 당시 베르베르인 노예들은 마그레브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아랍인은 베르베르 노예를 선호했는데 특히 베르베르 여자 노예는 아름다움 때문에 더욱 유명했다. AD 6~8세기 초에 베르베르 노예가 지중해 세계의 노예 수요에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AD 8세기 중반에 마그레브의 베르베르인이 지중해 세계의 노예를 공급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9세기 및 이후의 이슬람 세계의 노예에 대한 기록에서 베르베르 노예에 대한 언급이 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Swanson 1978: 249).

카르타고인은 북서 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과 많은 접촉을 하였고, 간접적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흑인 아프리카의 심장부에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헤로도토스 시대까지 페니키아 도시들은 사하라의 베르베르족과 광범위하게 교류하였고, 사막의 남쪽으로부터 상아, 금, 노예를 위한 천과 구슬과 금속제품을 거래하였다. 베르베르인들은 사하라를 가로질러 아프리카의 상품을 가져왔고 이를 위해 카르타고의 구슬과 장신구들을 사용했음은 의

12) AD 7~8세기까지 지중해 세계에 고용된 노예 대부분은 지중해 출신이었다. 로마 제국의 노예는 국경 너머에서 제국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 노예, 특히 농업 노예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노예 가족으로 로마의 통치자와 토지 소유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노예를 재생산하도록 하였다. 529년에 나온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The Code of Justinian)은 아버지가 어떤 신분이나에 관계없이 어머니가 노예면 태어나는 아이는 자동으로 노예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Swanson 1978: 245-247).

심할 여지가 없다. 헤로도토스는 사막을 건너 남쪽의 숲이 우거진 지역을 방문하여 작은 흑인들에게 붙잡혔던 몇몇 젊은 리비아인들이 여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대한 강이 있었고 거대한 악어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곳은 나이저강으로 보이며, 이러한 설명은 사하라 사막에서 수많은 전차의 암각화가 발견됨으로써 증명되었다. 암각화는 사막의 대상과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 두 개의 주요 노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호가르를 지나 나이저강의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이포가스의 아드라르의 능선을 따라, 또 다른 하나는 내륙 모리타니를 거쳐 세네갈 위쪽으로 주요 사막 지역의 서쪽을 통과하는 길¹³⁾이다(Oliver and Fagan 1975: 9-10).

암각화 예술의 증거는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정기적인 접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막의 암각화와 판화는 종종 두 바퀴의 말이 끄는 전차를 묘사한다. 가장 오래된 전차의 사용은 시기적으로 BC 17세기에 히소스(Hyksos)인이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말을 끄는 전차를 들여온 것이다. 가장 최근의 기록은 BC 300년경 사막의 북쪽 리비아인들이 전차를 기병으로 교체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Law 1967: 181-182).

두 길을 따라 전차를 이용한 정기적인 왕래, 심지어 무역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사하라 무역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두 민족, 즉 페잔의 가라만테스와 서부 사하라의 파루시(Pharusii)인에 관한 문헌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전차들이 이러한 길을 따라 끝에서 끝까지 왕복했다는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륜 전차나 소가 모는 전차를 제외하고 상품을 운반하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륜 전차가 상업적 무역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전차의 그림이 설명하는 것은 말과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수 있었던 두 개의 경로가 있었으며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Law 1967: 182).

5.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철 기술의 기원

5.1 아프리카 철 기술의 기원에 대한 논쟁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철 기술 기원에 대해 두 가지의 논쟁이 있다. 첫째는 고유한 발명이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파 또는 유입되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구리나 철 중 어느 금속이 먼저 제련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토착적 기원을 증명하기 위해 열 기술 지식의 "자연적" 진행, 즉, 복잡한 철 제련에 앞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리 제련이 먼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구리 제련은 누비아에서 철 제련 전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BC 1000년 초에서 중반까지 니제르와 모리타니의 사하라 남부지역을 따라 이루어졌다. 많은 고고학자는 철 기술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3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첫째, 이집트에서 메로에로 전달되었으며 서쪽에서 남쪽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북아프리카의 페니키아나 로마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 전해졌다는 주장이다. 셋째, 인도양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장은 서아프리카에서 철 제련에 대한

13) 전차 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서부 사하라에서는 북쪽의 피구이그(Figuig ; 남부 Oran)와 북쪽의 제벨 바니(Djebel Bani)에서부터 켄무르(Zemmour), 아드라르 산맥(Adrar Mauritanian), 다르 올라타(Dhar Oualata)를 거쳐 니제르에 있는 고운담(Goundam) 근처의 톤디아(Tondia)에 이르는 길이다. 중부 사하라에서는 북쪽의 페잔과 포트 폴리냐크(Fort Polignac)에서 타실리(Tassili des Ajjers), 호가르(Hoggar)와 티엠미사오(Ti-m-Missao)를 거쳐 이포가스의 아드라르(Adrar of the Ifoghas)의 에스-수크(Es-Souq)로 향하는 길이다(Law 1967: 181-182).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북아프리카 해안과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역사 비교언어학적 연구가 행해짐으로써 두 개 이상의 경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Childs 2016: 3099).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철 기술의 기원은 메로에에서 전해졌다는 것은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철의 발견은 BC 2천 년 상반기에 히타이트 제국에 속했던 아르메니아의 칼리브(Calybes 또는 Chalvbes)인이 했으며, 궁극적으로 유럽과 서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철에 대한 지식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BC 100년에 이르러 철 지식은 서남아시아 전역에서 상당히 일반화되었다(Hawkes and Woolley 1963: 564). 그러나 이집트로 확산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BC 7세기 이전에는 이집트에서는 철 제품이 드물었고 주로 주술과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Trigger 1969: 34). 이집트에서 철 제련은 제26왕조인 사이트(Saite) 시대(BC 665~525)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이집트에서 일반적으로 철이 사용된 것은 BC 5세기 무렵이었다(Trigger 1969: 36, Jemkur 2004: 34).

나일강 유역에서 BC 416~398년에 쿠시 왕국(Kush Kingdom)을 통치했던 하르시요테프(Harsiyotef)의 치하에서 제철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Arkell 1966: 452, Trigger 1969: 43). BC 450년부터 AD 4세기 사이에 형성된 메로에 왕실 묘지를 발굴한 고고학적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BC 750년에서 BC 4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제 유물이 작고 드물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BC 400년 이전의 나파타(Napata) 무덤 1,550개 중 18개만이 철기 유물이 매장되어 있었다(Arkell 1966: 452). 트리거는 철 생산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 매장품으로 사용된 철 유물은 무역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AD 350년 메로에가 몰락한 이후 철로 만든 보석이 귀해졌다. 많은 무거운 물건이 처음으로 나타나지만,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작은 칼, 큰 칼, 말의 재갈, 도끼, 괭이, 망치들이 만들어졌다. 메로에의 몰락 이후에 철 기술이 도구 제조와 대규모 생산으로 전환되어 생산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Trigger 1969: 42, 49, Jemkur 2004: 34-35).

필립슨(Phillipson)은 가장 큰 용재 더미 맨 아래에 있는 철, 용재, 토기 조각과 함께 발견된 숯 조각을 분석하고 메로에가 처음으로 철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BC 514 ± 73으로 주장했다(1970: 5). 타일러코테(Tylecote 1975b: 5)는 메로에서의 초기 철기 시대 단계는 BC 280 ± 120 에 사용된 작은 갈색 용광로에 의해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용광로는 타루가에서 발견된 용광로와 전혀 유사하지 않다. 이에 대해 트리거는 메로에의 철 기술이 서아프리카로 유입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실제로 시니(Shinnie 1967: 14, 1971: 99)는 나일강 너머 서쪽으로 더 먼 곳에서 메로에 시기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메로에 문화가 독점적으로 나일강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주장했다. 게다가, 트리거 (Trigger 1969: 26)에 따르면, 나일강과 다르푸르(Darfur) 사이의 초기 접촉에 대한 증거는 AD 550년경으로 보인다(Jemkur 2004: 35).

차드 호수와 만다라(Mandara) 산맥에 의해 형성된 회랑지대 근처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다이마(Daima) 유적지는 잘 기록된 몇 안 되는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이다. 차드 호수와 만다라 산맥에 의해 형성된 회랑지대 근처에 있다. 이 회랑지대를 통해 수단 지역의 동서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다이마는 돌과 뼈, 그리고 철이 사용된 유일한 나이지리아 유적지다. 후자와 같은 층은 A.D. 980 ± 650 및 B.C. 450 ± 95(Connah 1981, Fagan 1967: 518, Shaw 1969)의 시기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철은 6.5미터 깊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AD 5세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D. 1060 ± 90, A.D. 630 ± 190 및 BC 570년 ± 100(Connah 1981, Fagan 1969: 153)의 것으로 추가로 제시되었다. 코

나는 철의 사용을 AD 1세기에서 5세기까지 수정하였다. 다니엘(Daniels)은 나중에 현장과 관련된 날짜의 전체 순서를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철의 도입과 관련하여 AD 5~6세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결론지었다. 만약 실제로 철 기술이 메로에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다이마를 통과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남서쪽으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진 타루가 지역의 노크보다 더 이른 시기에 다이마에서 철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증거는 없다. 사실은 다이마에 이르기 약 600~800년 전에 타루가에서 이미 철이 제련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과 메로에의 철 산업이 지중해 로마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Tylecote 1975b)은 철기 제품이나 철 기술이 메로에에서 노크로 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Clark 1969, Jemkur 2004: 35-36).

보쿰(Bocoum)은 아프리카의 철의 제련과 생산에 관해 확산·전파 이론이 반세기 이상 전에 나왔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철의 연대기는 유럽인의 정복 때문에 맞닥뜨린 문화를 부정하는 수단으로써 확산·전파 이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철 기술의 전파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확산·전파이론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철 기술이 한 곳에서 기원했다는 가정과 더 나아가 보다 단순한 구리 기술이 나온 이후 복잡한 철 기술이 발명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인 가정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이나 조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사에서 철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매우 다른 환경에서 인간 공동체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이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2004a: 22-23, 27-28).

많은 학자가 유럽인이 아프리카 철 생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양성을 줄이는 접근법인 확산·전파 이론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확산·전파 이론에 대한 강조는 종종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비교를 하였는데 용광로 모양과 풀무의 형태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비역동적, 반역사적 입장에서 아프리카 철 기술에 관해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Cline 1937, Kense 1981, Kense 1985, Schmidt 1996: 3).

철 기술이 독자적 발명이든 유입 때문에 퍼졌든 관련 용어에 언어학적 흔적을 남기고 있다. 프랑스와 은수카(François Nsuka)와 드마레(Pierre de Maret)는 철 기술이나 야금술에 관련된 단어가 원형 반투(Proto-Bantu)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원형 반투 화자들은 철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즉 철 기술은 원형 반투인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주한 이후에 획득한 것으로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에렛(Christopher Ehret) (2003) 역시 위의 두 사람의 주장과 같이 철 기술이 처음 출현한 곳은 대호수(Great Lakes) 지역이었고 뒤이어 아프리카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철 기술이 나일 계곡에서부터 기원하여 확산·전파했다고 주장한 그의 주장은 동부 반투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주장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결점이 있었다(Vansina 2006: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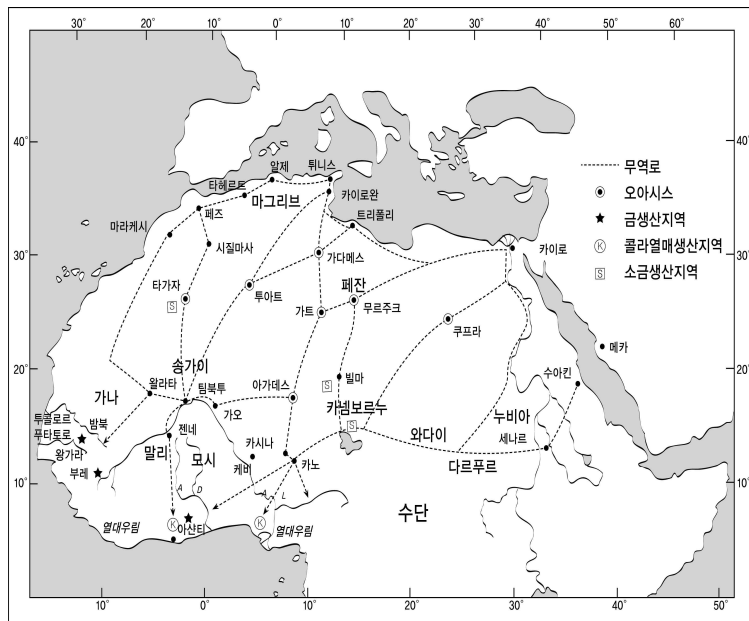
2004년 클레인 아렌트(Klein-Arendt)는 "사바나 반투(Savana Bantu)"에서 철 기술과 관련한 방대한 일련의 단어를 정리하여 출판하였다. 즉 동부, 남부, 동·중부 아프리카의 반투어 연구를 통해 모든 반투인의 "이주"와 "문화"의 확산이 시작부터 아주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했다. 철기의 출현과 관련하여, 그는 서아프리카의 철 기술은 하나 또는 여러 개뿐 아니라 북동부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로를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다(2004: 257).

드 마레(Pierre de Maret)와 티리(Genvieve Thiry)는 철 기술은 최초의 시기는 B.C. 500년 경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지역과 대호수(Great Lake)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위 지역 중 하나를 동서 이동의 기원으로 제시하는 주장에 반박하며 반투인의 이주와 연관시켜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산·전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LaViolette 1997: 743-744).

아프리카 역사 연구에서 아프리카 철 기술의 기원과 기술적 발전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사실은 철 기술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확산·전파되었는지, 아니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독자적으로 발명되었는지가 아니라, 왜 이 주제가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페른(Alpern 2005: 8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철 기술의 기원과 발견에 대한 논의가 인종주의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주장(2005: 89-93)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철 기술의 기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첫째, 기술은 시간과 대륙을 가로질러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은 동시에 기술, 경제, 사회, 이념,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체계는 문화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야금술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결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전으로 전해진 귀중한 정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Childs 2016: 3013).

<지도2> 사하라 무역로를 통한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교역(김윤진·김광수 2013: 117)



5.2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철 기술의 기원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철 기술의 기원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유입된 철 기술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페니키아인이 북아프리카, 특히 지금의 튀니지와 리비아에 철 지식을 가져왔고 '지식의 통로'였던 카르타고를 통해 철 기술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 전해졌다. 철 기술을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한 사람들은 사하라 무역로를 왕래했던 가라만테스인 또는 베르베르인이었다.

철 기술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고 가나(Ghana), 말리(Mali), 송가이(Songhai), 그리고 카넴-보르누(Kanem-Bornu)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철로 만든 농기구와 무기는 정착, 인구증가, 노동 분할, 교역 확대, 공동체의 확대, 군사 조직의 발전 등을 촉진했다(McIntosh and McIntosh 1983, Ogundele 2004: 126, Posnansky 1981: 542). 또한, 철 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

라 정신적 지위를 획득하였고 지역사회는 물론 왕국과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Gavua and Apoh 2011: 214, Miller and Van der Merwe 1994: 19).

철 기술의 외부 유입에 관한 논란은 아프리카 고고학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아프리카 철 기술이 외부에서 유입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어떤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에 유입되었는가가 중요한 문제였다(Huard 1960, Leclant 1956, Mauny 1952, Phillipson 1985). 철 기술이 외부에서 전파되었다는 주장을 가장 체계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마우니(Mauny 1952)였다. 그는 BC 2천 년에 히타이트인들이 철 기술을 발견했고 이후 지중해 전역에 퍼져 이집트에 직접 전해지면서 철 기술이 아프리카에 확산·전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BC 1300년경 람세스 2세에게 보낸 "아마르나 편지(Amarna letters)"에 파라오에게 철괴를 보내는 것이 지연된 사실을 담고 있다. 마우니는 초기 접촉에도 불구하고 BC 7세기경 앗슈르바니팔(Assurbanipal)이 이집트를 침공할 때까지 철 기술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우니는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경우 이집트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페니키아인을 통한 간접적인 전파를 주장했다. 그는 베르베르인이 BC 6세기 이후에 북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로 전해주었다고 주장했다(Bocoum 2004b: 98-99).

BC 1101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은 튀니지에 유티카(Utica) 무역항을 설립했고 BC 814년까지 카르타고를 건설했다. 카르타고의 철 기술 역사에 관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BC 300년까지 철이 구리 및 청동과 함께 제련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페니키아인은 무역을 목적으로 금, 은, 구리, 주석 등의 자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지중해 서부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페니키아인의 진출은 이집트인이 누비아와 동부 사막의 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 비록 구리는 모리타니의 악주주트(Akjoujt)에서, 주석은 니제르의 아이르(Aïr) 산맥에서 구할 수 있지만, 페니키아인은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다(Alpern 2005). 카르타고는 사하라 이남의 철 기술의 기원지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곳이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Chirikure 2015: 20).

모리타니의 악주주트는 BC 800년경 구리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로코로부터 철 기술을 도입하여 구리에서 철로 이행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Miller and Van der Merwe 1994). 그러나, 초기의 주장은 이집트와 카르타고인 정착지가 아프리카 남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카르타고를 통해 전해졌다고 생각했다(Childs and Herbert 2005). 알펜(Alpern 2005)은 BC 800년경에 카르타고에서 철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카르타고에 의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기가 문제가 되었는데 BC 691년 아시리아의 침략 이후 이집트에 철 기술이 전해졌다는 것이다(Scheel 1989). 게다가 카르타고에서 철의 출현에 대한 증거는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철이 사용된 시기보다 늦다(Darling 2013: 158, Eze-Uzomaka 2013: 4). 또 다른 난제는 나이지리아의 타루가에서 사용한 용광로와 이집트, 카르타고에서 사용한 용광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Tylecote 1975).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카르타고나 이집트 혹은 어딘가에서 철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였고 상황에 맞게 적응하여 발전시켜 원래의 기술과 구별된다는 주장은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Chirikure 2015: 25).

철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북아프리카의 페니키아 정착지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프랑스 학자 마우니(Mauny 1952)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마우니는 카르타고와 같은 도시나 인근 도시에서 철 제련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후대의 고고학자들과 야금학자

들이 그의 주장을 계속해서 지지하였다(Tylecote 1975a; van der Merwe 1980; van der Merwe and Avery 1982). 필립슨 같은 학자는 이러한 확산·전파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Philipson 1985), BC 8세기에 철 기술이 페니키아인들과 함께 북아프리카에 전해졌다는 개연성을 들어 주장이 이어졌다(van der Merwe 1980). 페니키아 기원에 관한 주장은 아프리카 역사 입문서에서 흔히 되풀이될 정도로 고착화 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BC 400년경 서아프리카 페니키아 정착지인 세르네(Cerne)가 2차 확산·전파 지점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Schmidt 1996: 9-10).

사하라 암각화에서 발견된 전차 길이 중요한 구리 생산지역이었던 모리타니 남부의 악주스트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1968년 고대 구리광산으로 유명한 모리타니의 겔브 모그레인(Guelb Moghreïn) 광산에서 램버트(N. Lambert)가 실시한 4번의 탄소 연대 측정에서 관련된 구리 유물이 모두 BC 5세 것으로 판명되었다(Lambert 1971). 이 지역은 베르베르 국경과 흑인의 영역이었고 구리와 철광석이 모두 섞여 있어 다른 하나만 생산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까지 구리와 철의 사용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BC 5세기까지 모로코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카르타고인에게 이미 알려진 철 기술이, 적어도 서아프리카의 모리타니를 통해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한 가능성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Oliver and Fagan 1975: 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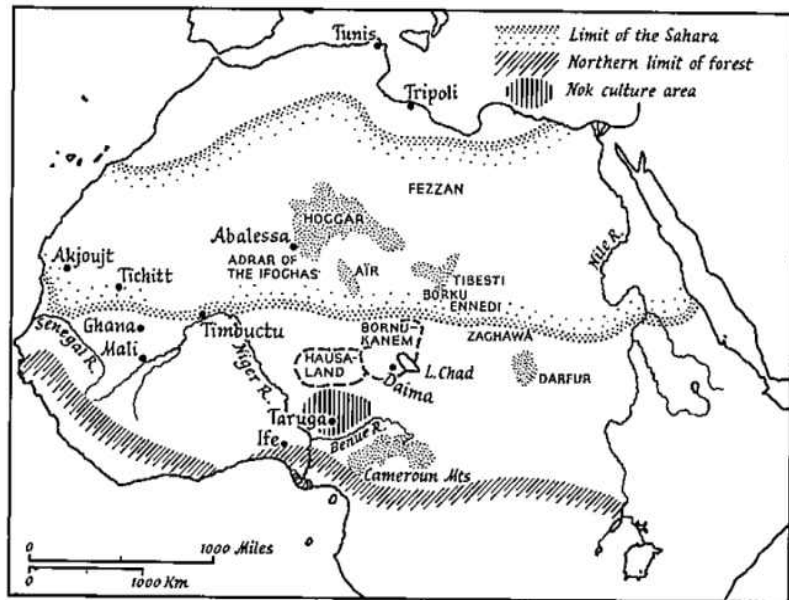
철 기술이 북서쪽이든 북동쪽이든, 아니면 양쪽에서 유입되었든 간에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는 사하라 무역로의 종착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어도 BC 3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철이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곳은 나이지리아 북부의 조스(Jos) 평원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그곳에서 현대의 주석 광산에서 '노크 문화(Nok culture)'로 알려진 수백 개의 테라코타 조각상을 발견했다. 우리가 아는 한, 그 조각상들은 어떤 하나의 물질문화에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석기 시대에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테라코타 조각들과 함께 철의 용재가 발견되었고, 광산의 바로 남쪽인 타루가에서, 베르나르 파그(Bernard Fagg)가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가 BC 4~3세기경으로 밝혀진 작은 조각상과 철의 용재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초기 철기 시대 수준이 AD 5세기에서 7세기 사이의 방사성 탄소 연대로 확인된 보르누(Bornu)의 다이마 고분에서 발견된 철과 분명히 큰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레베프(J. P. Lebeuf)가 라미 성(Fort Lamy) 북쪽에서 비슷한 고분을 발굴했는데 분명히 타루가보다 이른 시기의 철기 유물이었다(Oliver and Fagan 1975: 63-64).

철 기술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파된 경로는 카르타고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Mauny 1952, 1971, 1978, Shaw 1969, 1978, 1981). 카르타고는 BC 9세기 말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로 이들은 BC 1100 이전에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이미 정착하였다. 그들은 이집트보다 일찍 철이 널리 사용되었던 지역에서 왔다(Mauny, 1978). 철로 만든 물건은 BC 6세기부터 BC 3세기까지 무덤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를 볼 때 카르타고는 중요한 철 제품 및 무역 중심지였던 것이 틀림없다. 카르타고의 영향력은 가베스 만(Gulf of Gabes)을 따라 북아프리카 해안에 강하게 나타나며 내륙 지역은 가라만테스인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카르타고인들은 지브롤터 해협 서쪽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탐사를 시작했다. 철 기술이 점차 사하라를 넘어 서아프리카의 중심지로 확산·전파된 것은 카르타고인의 진출과 접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Mauny 1952, Shaw 1969).

철 제련에 대한 지식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두

가지 가능한 경로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시르테 만에서 말리 가오(Gao)에 있는 나이저 만곡부까지 이어지는 경로로, 철에 대한 지식이 카르타고의 영향권에서 나이저강을 따라 나이지리아에 도달하는 노선이 될 수 있었는데, 전차를 이용했던 가라만테스인을 중개자로 삼았을 것이다. 두 번째 길은 모로코 남부에서 모리타니를 거쳐 알라타와 티시트를 따라 니제르 중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들은 BC 1000년 전에 말이 끄는 전차들이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벽화가 있다(Mauny 1971, Jemkur 2004: 36).

<지도 3> 초기 철기 시대 사하라와 서아프리카 수단 서부지역(Oliver and Fagan 1975: 61)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벽화가 있다(Mauny 1971, Jemkur 2004: 36).

6 결론

이슬람 때문에 북아프리카를 중동의 일부로 보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시각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아프리카는 이슬람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일부였으며 지중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이 교류하며 발전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철의 기원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유입된 철 기술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페니키아인이 북아프리카, 특히 지금의 튀니지와 리비아에 철 지식을 가져왔고 '지식의 통로'였던 카르타고를 통해 사하라 사막을 넘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해졌다. 철 기술을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한 사람들은 사하라 무역로를 왕래했던 가라만테스인 또는 베르베르인이었다. 이들이 철 기술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지중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을 이어주는 사하라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이 지역들은 서로 고립되었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으며 교류하였다.

사하라 무역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까? 간단히 말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중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교류는 문명의 교류였으며 현재 국제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무역 분쟁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윤진·김광수. 2013. 『서아프리카 역사 이해』. 서울: 다해.
- 마틴 버널 지음, 오흥식 옮김. 2006. 『블랙 아테나: 서양고전 문명의 아프리카·아시아적 뿌리: 제1권 날조된 고대 그리스, 1785-1985』. 서울: 소나무.
- 마틴 버널 지음, 오흥식 옮김. 2012. 『블랙 아테나2: 고고학 및 문헌증거: 서양고전 문명의 아프리카·아시아적 뿌리』. 서울: 소나무.
- Bentahar, Ziad. 2009. "Connecting North And Sub-Saharan Africa Through Literature, Film, And Music." Ph.D. dissertation,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ernal, M. 1987.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The Fabrication of Ancient Greece 1785-1985, v.1)*. Rutgers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ernal, M., 1991. *Black Athena: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v. 2: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 Rutgers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ocoum, H. 2004a "Introduction." H. Bocoum (ed.) *The Origins of Iron Metallurgy in Africa. New Light on its Antiquity: West and Central Africa.*, pp. 21-28. Paris: UNESCO.
- Bocoum, H. 2004b. "Iron Metallurgy in Africa: A Heritage and a Resource for Development." H. Bocoum (ed.) *The Origins of Iron Metallurgy in Africa. New Light on its Antiquity: West and Central Africa.*, pp. 97-108. Paris: UNESCO.
- Childs, S. T., & Herbert, E. W. 2005. "Metallurgy and Its Consequences." In A. B. Stahl (ed.). 2005. *African Archae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pp. 276-300. Oxford: Blackwell.
- Childs, S. Terry. 2016. "Metallurgy in Africa." in Selin, Helaine (ed.) *Encyclopaedia of The His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Non-Western Cultures* vol.4 M-P, pp. 3098-3103. Dordrecht: Springer Reference.
- Chirikure, Shadreck. 2015. *Metals in Past Societies: A Global Perspective on Indigenous African Metallurgy*. Cham: Springer
- Clark, J.D. 1969. *The Prehistory of Africa*. London: Thames and Hudson.
- Cline, W.W. 1937. *Mining and Metallurgy in Negro Africa* (General Series in Anthropology 5). Menasha (WI): George Banta.
- Connah, G. 1981. *Three Thousand Years in Africa: Man and His Environment in the Lake Chad Region of Nig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ling, P. 2013. "The World's Earliest Iron Smelting? Its Inception, Evolution and Impact in Northern Nigeria." In J. Humpris & T. Rehren (eds.) 2013. *The World of Iron*, pp. 156-167. London: Archetype.
- Eze-Uzomaka, P. 2013. "Iron and Its Influence on the Prehistoric Site of Leija." In J. Humpris & Th.
- Hawkes, J. and Woolley, L. 1963. *Prehistory and the Beginnings of Civilization*. London,

- Allen and Unwin.
- Hull, Richard W. 1977. *African Cities and Towns before the European Conquest*. W. W. Norton & Company.
- Hunwick, John O. 2010. *West Africa, Islam, and the Arab World: Studies in Honor of Basil Davidson*.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 Jemkur, J.F. 2004. "The Beginning of Iron Metallurgy in West Africa." H. Bocoum (ed.) *The Origins of Iron Metallurgy in Africa. New Light on its Antiquity: West and Central Africa*, pp. 33-42. Paris: UNESCO.
- Kense, F.J. 1981. "Daboya: A Gonja Frontier." Ph.D. dissertation, Calgary: University of Calgary.
- Kense, F.J. 1985. "The Initial Diffusion of Iron to Africa." In R. Haaland and P. Shinnie (eds.) 1985. *African Iron Working: Ancient and Traditional*, pp. 11-27. Oslo: Norwegian University Press.
- Klein-Arendt, Reinhard. 2004. *Die traditionellen Eisenhandwerke der Savanna-Bantu: Eine sprachhistorische Rekonstruktion auf lexikalischer Grundlage*. Frankfurt: Peter Lang.
- Konczacki, M. and Konczacki, Z.A. 1977. *An Economic History of Tropical Africa, Vol.1: The Pre-Colonial Period*. London: Frank Cass.
- Levtzion, Nehemia and Hopkins, J.F.P. 2000. *Corpus of Early Arabic Sources for West African History*. Markus Wiener Publishers.
- Levtzion, Nehemia and Spalding, Jay. 2010. *Medieval West Africa*.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 Mauny, R. 1971. *Les siècles obscurs de l'Afrique noire. Histoire et archéologie* [Black Africa's Dark Centuries. History and Archaeology]. Paris: Fayard.
- Mauny, R. 1978. "Trans-Saharan Contacts and the Iron Age in West Africa." in Fage, J. (ed.) 1978. *Cambridge History of Africa*, vol.2, pp. 272-3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Kissack, P. & McKissack, F. 1995. *The Royal Kingdoms of Ghana, Mali, and Songhay: Life in Medieval Africa*.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Ogundele, O. S. 2004. *Rethinking West African Archaeology*. Ibadan: John Archers Ltd.
- Oliver, Roland and Fagan, Brian M. 1975. *Africa in the Iron Age: c.500 B.C. to A.D. 14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print edition.
- Phillipson, D.W. 1985. *Africa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snansky, M. 1981. "Introduction to the Later Prehistory of Africa." In G. Mokhtar (ed.) 1981. *Ancient Civilizations of Africa*, pp. 533-550. Paris: UNESCO General History of Africa II.
- Scheel, B. 1989. *Egyptian Metalworking and Tools*. Oxford: Shire Publications.
- Schmidt, Peter R. 1996. "Cultural Representations of African Iron Production." In Schmidt Peter R (ed.) 1996. *The Culture and Technology of African Iron Production*, pp. 1-28.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Shaw, C.T. 1978. *Nigeria: Its Archaeology and Early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 Shaw, C.T. 1981. "The prehistory of West Africa." In J. Ki-Zerbo (ed.) 1981. *UNESCO General History of Africa, vol. 1. Methodology and African Prehistory*, pp. 264-274. Paris: UNESCO.
- Swanson, John Theodore. 1978. "The Not-Yet-Golden Trade: Contact And Commerce Between North Africa And The Sudan, To The Eleventh Century." Ph.D. dissertati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 Tolmacheva, Marna A. 2016. "East and West: Africa in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from East to West." in Helaine Selin (ed.) *Encyclopaedia of The His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Non-Western Cultures* vol.2 B-E, pp. 1559-1562. Dordrecht: Springer Reference.
- Van der Menve, N. 1980. "The Advent of Iron in Africa." In T. Wertime and J. Muhly (eds.) 1980. *The Coming of the Age of Iron*, pp. 463-506.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right, John. 2007. *The Trans-Saharan Slave Trade*. London: Routledge.

2. 학술지 논문

- 김광수, 2007. "아프리카 중심주의(Afrocentrism): 아프리카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아프리카 연구』 21: 55-78.
- 김광수. 2012.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의 정체성: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Afrocentric perspective)에서." 『韓國아프리카學會誌』 37: 75-122.
- 김광수. 2016.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 시각에서 바라본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의 역사적 맥락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35: 383-418.
- 김광수. 2019. "사하라 무역로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발전." 『韓國아프리카學會誌』 56: 47-88.
- Alpern, Stanley B. 2005. "Did They or Didn't They Invent it?: Iron in Sub-Saharan Africa." *History in Africa* 31: 41-94.
- Arkell, J. 1966. "The Iron Age of Sudan." *Current Anthropology* 7(4): 451-452.
- Chami, Felix A. 2007. "Diffusion in The Studies of The African Past: Reflections From New Archaeological Findings." *African Archaeological Review* 24: 1-14.
- Fagan, B.M. 1969. "Radiocarbon Dates for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African History* 10: 495-506.
- Gavua, Kodzo and Apoh, Wasi. 2011. "Alternative Site Conservation Strategies in Ghana: The Adome Ancient Ironworking Si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13(2-3): 212-230.
- Huard, P. 1960. "Contribution à l'étude du fer et du chameau au Sahara occidental, I." *Bulletin de l'IFAN Serie B* 22(1-2): 134-178.
- Lambert, Nicole. 1971. "Les industries sur cuivre dans l'ouest saharien [Copper industries in western Sahara]." *West African Journal of Archaeology* 1: 9-21.
- LaViolette, A. 1997. "Reviewed Work: The Culture and Technology of African Iron

- Production by Peter R. Schmidt." *Ethnohistory* 44(4): 743-745.
- Law, R.C.C. 1967. "The Garamantes and Trans-Saharan Enterprise in Classical Times",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8(2): 181-200.
- Leclant, J. 1956. "Le fer dans l'Égypte ancienne, le Soudan et l'Afrique [Iron in Ancient Egypt, the Sudan and Africa]." *Annales de l'Est* (Nancy) 16: 83-91.
- Levtzion, Nehemia. 1968. "Ibn-Hawqal, the Cheque, and Awdaghost."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9(2) : 223-233.
- Mauny, R. 1952. Essai sur l'histoire de métaux en Afrique occidentale. *Bulletin de l'Institut Français de l'Afrique Noir* 14(2): 545-595.
- Mazrui, Ali. 2005. "The Re-invention of Africa: Edward Said, V. Y. Mudimbe, and Beyond."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6: 68-82.
- McIntosh, R. and McIntosh, S.K. 1983. "Current Directions in West African Prehistor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2: 215-258.
- Miller, D. E. and Van der Merwe, N. J. 1994. "Early Metal Working in Sub-Saharan Africa: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African History* 35(1): 1-36.
- Parker, G.W. 1917. "The African Origin of the Grecian Civilization." *The Journal of Negro History* 2(3): 334-344.
- Phillipson, D.W. 1970. "Notes on Later Prehistoric Radiocarbon Chronology of Eastern and South Africa." *Journal of African History* 11: 1-15.
- Posnansky, M. and McIntosh, R. J. 1976. "New Radiocarbon Dates for Northern and Western Africa." *Journal of African History* 17(2): 161-195.
- Shaw, C.T. 1969. "On Radiocarbon Chronology of Iron Age in Sub-Saharan Africa." *Current Anthropology* 10: 226-231.
- Tissières, Hélène. 2002. "Maghreb - Sub-Saharan Connection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3(3): 32-53.
- Trigger, B.G. 1969. "The Myth of Meroe and the African Iron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2: 23-50.
- Tylecote, R. F. 1975a. "The Origins of Iron-Smelting in Africa". *West African Journal of Archaeology*. 5: 1-9.
- Tylecote, R. F. 1975b. "Iron Smelting at Taruga, Nigeria." *Journal of the Historical Metallurgy Society* 9(2): 49-56.
- Van der Merwe, N. and Avery, D.H. 1982. "Pathways to Steel." *American Scientist* 70: 146-155.
- Vansina, J. 2006. "Linguistic Evidence for the Introduction of Ironworking into Bantu-Speaking Africa." *History in Africa* 33: 321-361.

3. 웹사이트

- 알 야쿠비(Ahmad al-Ya'qubi) -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5a0767a (검색일 : 2019. 09. 14).
- 게니자(Geniza) -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1g2373a (검색일: 2019.09.14.).

MENA - <https://www.investopedia.com/terms/m/middle-east-and-north-africa-mena.asp>.(검색일: 2019.09.12.).

There is no history in Africa - <http://desmondlampsey.blogspot.com/2012/09/normal-0-false-false-false.html?m=1> (검색일: 2019.09.12.)